

“월화·수목 드라마, 시청률과 화제성 짝 잡았다!” 〈육룡이 나르샤〉, 〈리멤버-아들의 전쟁〉 매회 자체 최고 기록 경신 중



1월 12일(화) 방송된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연출: 신경수) 30회가 전국시청률 15.8%(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10월부터 방송된 〈육룡이 나르샤〉는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한 뒤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김영현, 박상연 작가의 탄탄한 극본과 주·조연을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 영화 같은 화면과 음악, 화려한 액션장면은 마니아층을 형성해, 각종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는 〈육룡이 나르샤〉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29회에서는 드라마 초반부터 찾아 헤매던 전설의 무림고수 척사광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최고의 반전을 선사했

고, 32회에서는 고려를 지키려는 세력인 '무명'의 수장이 밝혀지는 등 설 새 없이 반전이 휘몰아치며 흥미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두 천재작가가 보탠 상상력과 창조력은 매번 다음 회를 더 기다리게 한다.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아들의 전쟁〉(연출: 이창민)의 돌풍은 더욱 거세다. 지난해 12월 9일(수) 7.2%(닐슨코리아/수도권)라는 미약한 시청률로 시작했으나, 3회부터 1위를 차지하며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해, 1월 13일에는 19.1%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영화 〈변호인〉의 작가 윤현호의 마법은 브라운관에서도 통했다. 윤 작가는 이 작품으로 휴머니티가 살아있는 법정 드라마 전문 작가로 우뚝 섰다. 또 유승호,

박민영, 박성웅, 남궁민, 전광렬의 연기력은 시청자들을 백 퍼센트 드라마에 몰입시킨다. 1월 14일(목) 방송된 10회에서 법정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오열하는 유승호의 연기는 안방까지 울려버렸다. 인터넷에는 “간만에 몰입이 되는 드라마를 본다”, “남자배우들의 연기력대회 같다”는 호평과 함께, “우리 승호님 그만 울려라”, “드라마를 보고 나면 고구마 100박스를 먹은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작가님 대체사이다는 언제 줄 거냐”와 같은 귀여운 향의도 줄을 잇고 있다.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돈 〈리멤버-아들의 전쟁〉의 상승세는 거침이 없어, 어디까지 치솟을지 궁금증을 주고 있다.

김수현 작가의 귀환, 주말 밤 9시대 드라마 지각 변동 〈그래, 그런거야〉, 막장 없는 가족극으로 훈훈한 감동 선사



2016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그래, 그런거야〉(극본: 김수현, 연출: 손정현)가 2월 13일(토) 밤 9시대에 첫 방송된다. 이로써 주말 밤 9시대 ‘오픈 존’은 다시 드라마가 차지하게 됐다. 김수현 작가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당대 최고의 작가. 〈청춘의 덫〉, 〈불꽃〉, 〈내 남자의 여자〉, 〈인생은 아름다워〉, 〈천일의 약속〉,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등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주옥같은 대사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김수현 작가가 2016년, 자신의 주종목인 ‘대가족’ 이야기를 들고 SBS로 돌아왔다. 〈그래, 그런거야〉는 이순재·강부자의 세 아들 노주현, 송승환, 홍요섭과 그 아들딸 3대의 이야기로, 가족 문화가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갈등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준다. 지난 1월 초 SBS 일산제작센터에서 김수현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본 리딩 현장은 실제 녹화장을 방불케 했다. 이순재, 강부자, 김해숙, 노주현, 송승환, 양희경, 홍요섭, 임예진, 정재순, 김정난, 서지혜, 조한선, 남규리, 윤소이, 신소율, 왕지혜, 정혜인, 김영훈 등 연기와 배우들은 열띤 리딩으로 대작가의 작품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냈다. 김수현 작가는 대사의 흐름과 캐릭터의 감정 선에 맞게 배우들의 역량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손정현 PD는 “신규 연기자들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고, 각 배우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막장 없는 ‘가족 이야기’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할 〈그래, 그런거야〉는 2월 13일(토) 첫 방송된다.

2015 하반기 작품상 등 시상식 개최...〈그것이 알고 싶다〉 4관왕

2015년 하반기 작품상, 특별상, 인센티브상, 시청자만족도 대상, 2015년 4분기 비전실천상, 특종상, 기획보도상, 뉴미디어상 시상식이 1월 11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5 하반기 작품상

- 최우수상 : 〈용팔이〉(오진석 차장)
- 우수상 : 〈생활의 달인〉(안순범 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안운태)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서혜진 차장대우)

2015 하반기 특별상

- 박소현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MC,
〈박소현의 러브게임〉 DJ
- 백종원 : 〈백종원의 3대 천왕〉 MC
- 황주하 : 〈미세스 캡〉 작가
- 장혁린 : 〈용팔이〉 작가
- 김영철 : 〈김영철의 편편 투데이〉 DJ
- 설영범 : 〈물은 생명이다〉 성우

2015 하반기 인센티브상

- 〈용팔이〉(오진석 차장대우)
- 〈미세스 캡〉(SBS플러스 안길호 차장대우)
- 〈정글의 법칙〉(이지원 차장, 박종원, 김진호)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허강일 차장, 최성 차장대우)

- 〈TV동물농장〉(이덕건 차장, 안교진 차장)
- 〈자기야-백년손님〉(민의식 차장, 김영식 차장대우)
- 〈그것이 알고 싶다〉(정철원 차장 외 6명)
- 〈백종원의 3대 천왕〉(유운재 차장, 안재철)
-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서혜진 차장대우, 조문주, 김민)
-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특집(정철원 차장, 류영우, 배정훈)
- 〈영재발굴단〉(김재원 차장대우, 황성준)
- 〈웃찾사〉(공희철 차장, 안철호 차장대우)
- 〈두시탈출 컬투쇼〉(김찬웅 차장, 이세훈)
- 〈이숙영의 러브FM〉(이재익 차장대우)

2015 하반기 시청자만족도(ASI) 대상

- 〈그것이 알고 싶다〉 · 드라마본부 · 보도본부

2015 4분기 비전실천상

- 콘텐츠파트너십팀 이선희
- 편성팀 서경국, 장현희
- 시사교양본부 이동원
- 예능본부 정익승
- 드라마본부 정동윤
- 라디오편성기획팀 송근희
- 뉴미디어제작부 권영인 차장대우, 하대석, 정경윤
- 제작리소스팀 김준철 차장
- ERP팀 정일영 차장
- 편집기술팀 한중우

2015 4분기 특종상 금상 시민사회부 김종원

2015 4분기 기획보도상 금상 보도본부 정치부

2015 4분기 뉴미디어상 금상 경제부 김범주 차장



인터뷰 이 사람

〈백종원의 3대 천왕〉, 주말 전진 배치로 1등 탈환한다

- 프로듀서 유운재 차장(예능2CP 소속)



〈백종원의 3대 천왕〉(연출: 안재철)이 1월 30일(토)부터 토요일 저녁 6시 10분에 방송된다. 〈주먹 쥐고 소림사〉가 종영한 자리에 '주말 예능 프로그램의 부활'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자리를 옮기게 된 것. 〈백종원의 3대 천왕〉은 차원이 다른 '먹방', '쿡방'으로 최근 6주 연속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기록,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시작 초기 '또 먹방이냐'는 우려가 있었다.

먹방은 많지만 먹는 방법과 조리 방법까지 탐구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처음이다. 시청자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더 진보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 '아는 만큼 맛있다'라는 차별적인 기획의도를 세우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시청자에게 친근하면서도 전문지식을 가진 백종원을 기용해 기본을 고수하면서도 디테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모든 사람이 한 끼 식사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명인들도 하루 장사를 접고 올라와서 숨김없이 조리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들 역시 전국에서 매주 천 명 이상 시식 갤러리 신청을 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성이 모여 〈3대 천왕〉만의 '쿡방', '먹방'을 만들고 있다.

'또 백종원이냐'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 〈힐링 캠프〉 제작진을 통해 오래 전부터 백종원과 프로그램 제작 논의가 있었다. 시기를 조율하던 중 타사 프로그램이 먼저 제작되었지만, 백종원의 매력은 아직 무한하다고 판단했다. 백주부가 아닌 음식전문가 '백설명'으로서 백종원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었다.

3대 천왕 중 1위를 뺏다가 폐지했는데...

스튜디오에 나온 명인들은 한평생 자신의 일에 몰두해 일가를 이룬 장인들이다. 이분들의 각기 다른 장점을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렵게 모신 명인들이 경쟁이 아닌 갈라쇼로 즐겁게 요리쇼에 참가해야 시청자들도 편안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청률 7%로 시작해서 12월부터 8%를 넘었고, 9%도 넘을 기세다. 아이টে에 따라 다른 건지?

보다 친근하고 서민적인 아이টে이 시청률을 더 견인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프로그램이 안착하면서 시청률의 변동 폭이 많이 줄고 있어 고무적이다.

토요일 저녁 6시대로 가게 됐는데 각오는?

가장 격전지로 볼 수 있는 주말 예능시간대로 이동하게 돼서 부담이 크다. 게다가 상대 프로그램은 국민예능으로 불리는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다. 〈3대 천왕〉이 치고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백종원을 비롯한 MC들의 열정과 밤낮없이 전국을 누비는 스태프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시청자 참여 코너와 글로벌 음식 소개 코너 등, 좀 더 배리어터틴한 구성으로 시청자를 찾아가고 싶다.

팀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출팀과 외주 편집팀, 맛집 답사 때문에 건강을 상해가며 일을 하는 작가들이 혼신을 다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매주 많게는 50여 개 식당을 찾아다니며 시식하고, 맛집 섭외를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스튜디오에서 맛본 음식 중 진짜 맛집을 추천해 달라.

몇 번 못 먹어봤지만 심혈을 기울여 섭외한 집들이라 모두 맛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갤러리들의 시식평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중국판 <정글의 법칙>, <달려라 형제> 성공신화 있다



1월 8일(금)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중국판 <정글의 법칙>(가제 <총림적 법칙>)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SBS는 지난해 중국 안후이위성과 중국판 <정글의 법칙> 공동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PD와 작가 등 한국 스태프 4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오기룡, 송다린 등 중국 정상급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시즌 1은 2월부터 마다가스카르와 에콰도르에서 촬영에 들어가며, 5월에 중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이다.

글로벌제작CP는 "SBS와 공동제작하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겠다. <총림적 법칙>의 성공은 다른 공동제작 및 부가사업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총림적 법칙>이 <달려라 형제>와 같은 성공신화를 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안후이위성 측은 성공을 확신하며 벌써부터 시즌 2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SBS 미디어넷

방통위 제작역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SBS스포츠, SBS골프, SBSCNBC 등 SBS미디어넷의 3개 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등록대상 PP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들 채널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SBS미디어넷이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제작 역량을 가진 PP임을 확인시켰다. SBS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아, SBS미디어넷 4개 채널이 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매우 우수' 등급에 빛나는 SBS스포츠는 프로야구와 EPL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중계해 왔으며, 올림픽, 월드컵 등의 콘텐츠를 통해 슈퍼 프로덕션으로 성장했다. SBS골프 역시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 채널로, 중계물과 레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작 노력을 뽐냈다.

SBSCNBC는 경제 이슈를 심층 취재, 분석한 콘텐츠 외에도 인문학, CEO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우수' 등급을 받은 SBS플러스는 2015년 <당신을 주문합니다>, <중화대반점>, <세프끼리>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사랑받았다.

SBS A&T

논산시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SBS A&T와 논산시는 지난 11일(월) 논산시청에서 관광자원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BS A&T와 논산시는 탐정호 등 논산시 관광자원 개발, 밀리터리 테마파크, 강경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운영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등 논산시 관광명소화 사업 성공을 위한 제반 사항에 협력하게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성화에 따른 자문은 물론 세트 제작기술,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소 제공 등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SBS A&T가 방송제작은 물론 순천 드라마세트장 및 합천 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 등 관광개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논산시의 파트너가 돼주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스케치

대학로 SBS 공식 <웃찾사> 전용관 오픈 개그맨은 생활 안정, SBS는 콘텐츠 창출 원-원



1월 15일(금) 저녁 8시, 대학로 상명아트홀 맞은편에 위치한 <웃찾사> 전용관에 관객들이 줄지어 입장했다. 150석 규모의 70평 남짓한 공연장은 금세 꽉 차버렸다. 이곳은 지난 4일 문을 연 'SBS 공식' <웃찾사> 전용관으로, SBS가 직접 운영한다. 그동안 여기저기 있었던 <웃찾사> 공연관은 일부 개그맨 소속사들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이름만 빌려 신인 위주로 운영했다. <웃찾사>의 개그맨과 코너를 기대하고 온 관객들의 실망이 컸던 것은 당연한 일. 이제 SBS 공식 전용관의 탄생으로 그들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공연이 시작되고 <웃찾사>의 인기코너 '흔한 남매'가 진행되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예쁘게 봐주세요~", "따라하지 말라고~"를 함창한다. 13개의 코너가 진행된 1시간 40여 분 동안 설 새 없이 웃음이 터졌다. <웃찾사>가 이렇게 인기였나 싶을 정도로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휴게실에서는 공연을 끝낸 팀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자신들의 코너를 점검한다. '흔한 남매' 한으뜸, 장다운은 "전용관이 생겨서 관객들에게 먼저 감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떤 대사를 할 때 반응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체크해서 다음 주 녹화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대기실에서 만난 개그맨 최백선은 "개그맨은 모여 있어야 코너가 나온다. 신인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데 자기 돈 써가면서 카페에서 눈치 보며 회의를 해왔다. 연습은 아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커피 값 걱정 없이 24시간 개방된 전용관에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연습하고, 서로 모니터링해주시 너무 좋단다.

<웃찾사>의 안철호 프로듀서는 휴관일인 월요일만 빼고 매일 이곳으로 출근한다. 프로듀서는 인력운영과 예산, 협찬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관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새 코너를 방송에 납품하는 것으로, 매일 공연을 보면서 '될 코너'와 '안 될 코너'를 짚어주고 보완점을 지시한다. 안철호 프로듀서는 "전용관이 생긴 후 개그맨들의 사기가 오르고 의욕이 넘친다. 격려차 방문한 김경욱, 김형인, 강성범 등 <웃찾사> 전성기 때의 개그맨들이 그때의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말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얻는 수익은 전액 개그맨 복지를 위해 쓰인다. 출연 개그맨들에게 매일 식대를 보조해주고, 3개월 단위로 수익을 정산해 지급한다. 방송에 나가지 못하면 생계 걱정을 해야 했던 SBS 희극인실 소속 150여 명의 개그맨들이 공연 출연료를 받는 것이다.

안철호 프로듀서는 "전용관 운영의 목적은 SBS의 수익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에 있다. 공연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개그맨들은 치열하게 방송에 나갈 코너를 구상한다. 이것이 <웃찾사> 제2의 전성기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엔플레닛 노형찬 대표는 "현장 티켓부스를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예매에서 매진된다. 예약 없이 왔다가 문 앞에서 돌아가는 관객도 많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준 <웃찾사> 공연 예매 순위는 쿠팡에서 2위를 달리고 있었다.

공연장에서 만난 한 커플은 "방송에 나오는 인기 코너들이 절반 이상 되고, 처음 보는 코너도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학로에서 1~2만 원으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니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용 개그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토요일은 3시와 6시, 일요일은 2시와 5시, 화요일과 금요일은 5시와 8시, 수요일과 목요일은 8시에 공연하며, 오픈 기념 할인 행사 기간 동안 토요일은 2만 원, 일요일은 만 오천 원, 평일은 만 원이다. <웃찾사> 녹화로 주요 개그맨들이 빠지는 목요일엔 반값에 즐길 수 있다. 쿠팡, 인터파크 등을 통해 예매는 필수.

| 알고 지내요-시청자상담실 |

하루 전화 400통까지, 6인의 프로가 책임진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이 가장 많은 직업은 텔레마케터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 빈도, 외부 고객 대응 중요도,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대응 빈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이라 하니, SBS에서는 단연 시청자상담실일 것이다.

본사 22층 심의팀 내에 위치한 시청자상담실에는 (주)엑스퍼트 소속 유아름보미(33세), 김은정(32세), 정희진(33세), 강명문(31세), 서희선(30세), 박은영(26세) 6명의 여직원이 근무한다. 조근-정근-야근으로 나뉘어 아침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조근-야근 1인씩 맞교대로 근무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들이 대부분이라 타 일러도 통하지 않고 장난치듯 비아냥거리며 상담원 놀리기를 즐긴다"고 말했다.

병적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원 사이에서 '편성쟁이'로 통하는 남자는 10년 넘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해 드라마 회차나 출연자, 편성에 대한 질문을 해댄다. '정치녀'로 통하는 여자는 보도에 대해 물어보다가 정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다.

갑자기 성희롱이나 욕을 하는 시청자들도 있다. 이럴 땐 더 이상 상담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끊는다. 그나마 작년 4월부터 자동으로 녹취가 된다는 사전 안내 메시지가 나가면서

이런 전화는 크게 줄었다.

400통의 시청자 전화가 온다.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문의 전화지만 항의 전화가 폭주하는 날도 많다. 스포츠 중계 등으로 인한 정규 프로그램 결방 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정 종교집단을 다뤘을 때, 가요순위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가수 팬들의 집단 항의 등이 그런 예다. 정희진 상담원은 "제일 무서운 건 아이돌 팬들이다.

이런 전화는 크게 줄었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가끔 있다. 확인해주기 어려운 방송정보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주었을 때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파헤쳐 큰 반향을 일으킨 경우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Y>, 지금은 폐지된 <긴급출동 24시>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칭찬이 많다고 한다.

상담원들은 감정을 제대로 분출하지 못해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들끼리의 수다를 통해서 푼다. 친구나 가족들보다 더 많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라, 유대감이 돈독하다. 임신한 동료의 태교를 위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시청자의 전화는 대신 받아주기도 한다.

김은정 상담원은 "상담실 안에서 외부전화를 상대하다보니 10년째 SBS에 다니고 있지만 회사 사람들과 안면을 익힐 기회가 없다"고 아쉬움을 말했다. 같은 층에서 마주치는 직원 들조차 "그 방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기도 한단다. 강명문 상담원은 "시청자 문의에 답하기 위해 제작진에 정보를 요구하면 알려준다고 하고 목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반면에 <생방송 투데이> 같은 외주, 데일리 프로그램은 체계가 잡혀 업무 협조를 잘해 준다.

유아름보미 실장은 "SBS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서, "제작진들이 협조를 잘해주면 SBS에 호감을 갖는 시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제작진의 협조를 부탁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안지환, 김지선의 세상을 만나자> '동물농장 아저씨'와 '다산의 여왕'의 환상 케미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일 오전 10:05-12:00



"안녕하세요? <세상을 만나자>의 안지환",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매일 아침 10시 5분이면 한껏 들뜬 두 DJ의 힘찬 인사로 <세상을 만나자>는 시작된다. 최종 목표는 라디오 DJ였다는 성우 안지환과 2009년 4월부터 <세상을 만나자>의 안방 마님이 된 개그우먼 김지선의 만남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퇴사로 시작됐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막 4개월이 지났지만, 16년 같이 산 부부 같다는 사연이 올 만큼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다.

안지환을 '동물농장 아저씨'라 부르는 꼬마 청취자 팬부터 '다산의 여왕' 김지선에게 기를 받아 아이를 순산하고 싶다는 임신부 청취자까지 알찬 사연과 문자를 보내준다. 작가들의 손을 통해 '예쁜 원고'로 거듭난 이 사연들은 전파를 타고 매일 아침 청취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배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라디오로는 서울 인근 지역만 청취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로 멀리 부산, 제주도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는 청취자가 있어 늘 고맙다.

10년차 DJ에게 주는 공로상 'Voice of SBS'에 꼭 한 번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열혈 라디오맨 안지환 그리고 각종 성대모사부터 애교, 신들린 연기력까지 겸비한 라디오계의 전도연, 김지선! 이 두 사람이 외치는 "내일 또 만나요~" 라는 끝인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아침 일상, 그 자체가 되어가는 라디오로 영원했으면 한다.

-연출 허금옥(라디오1CP 소속)

디지털 시청자와 소통하다

화제만발 비하인드 콘텐츠, 3박자가 맞았다!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이 자체 최고 및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시청률 고공행진 중이다.

<리멤버-아들의 전쟁> 홈페이지 (tv.sbs.co.kr/remember2015)에는 방송의 큰 인기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콘텐츠가 있으니, 바로 제작진이 직접 생생한 촬영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PD노트'다.

'PD노트'에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4가지 관전 포인트', '열연이 빛나는 배우들의 명장면 비하인드', '본부장이 쓴다! 시청률 1등 간식차 출동' 소식 등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출연자들의 매력적인 모습과 스태프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누명도 깔끔하게 벗는다! 수목은 리멤버 데이!' 콘텐츠는 PR팀(이일환 차장대우)의 기획력과 SBS콘텐츠허브(SBS서비스팀)의 특화 콘텐츠 제작력이 더해져 매주 수, 목요일을 '리멤버 데이'로 만들었다.

제작진-PR팀-SBS콘텐츠허브가 함께 만들어가는 <리멤버-아들의 전쟁>은 2016년 새해에도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SBS콘텐츠허브 SBS서비스팀